

이태선 (경북 영천시민)

1. 단어 선정


60여년 간의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19살 때 공무원에 합격하여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것, 그 와중에 결혼도 하였고, 자식도 낳고, 훗날에는 명예퇴직도 하는 등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이 다 된 지금의 나이에 제가 걸어온 삶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행복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그리운 순간 모두가 교차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짧은 만큼 남은 제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후에 다시 내 삶을 돌아본다면 '참 행복했던 삶'이었노라고 꼭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이라는 우리말을 멋글씨 단어로 선정해보았습니다.

2. 멋글씨(작품) 제작 취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들이 모두 밝은 등대의 인도를 받아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에서도 등대의 인도를 받아 왔고, 슬펐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밝은 빛을 내뿜는 등대의 인도를 받아왔음을 떠올려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음 'ㅣ'를 표현할 때 등대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또 종성 'ㄹ'의 경우 밝은 등대의 빛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남녀의 모습을 표현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새로운 스물여덟자를 만들어
가득하고 어여쁜 백성들에게
쉬운 한글을 주어
나 마 다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리라. 

박구영 (포항 영일고등학교)

1. 단어 선정

‘한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한글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의 초기 이름이었던 ‘가갸날’이 생각났습니다. 가갸날은 1926년 한글이 창제된 날을 처음 기념한 날에 정한 이름입니다. 한글 창제 이전, 어려운 한자를 사용했던 시대에 비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쉬운 한글을 배워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줄임말까지 만들어 다양하게 한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한글을 익혀 널리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창제한 세종대왕의 바람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글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저 휴일로만 생각하며 한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갸날’을 활용해 삼행시를 썼습니다. 한글날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진 ‘가갸날’로 삼행시를 지은 것은 한글이 처음 창제될 그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고 싶어서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조선어학회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편리한 우리의 언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사랑하고자 가갸날이라는 단어를 정했습니다.

2. 멋글씨(작품) 제작 취지

가갸날이란 단어를 활용해 삼행시를 적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할 당시 세종대왕께서는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들어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한글의 창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갸날 삼행시를 통해 화려함 없이 수수하고 담백한 붓글씨를 통해 이런 깊은 뜻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